

‘4자회담’ 또 빈손… 정상화·파국 갈림길

여야, 국정원개혁 특위·특검 입장차

‘추후 협의’ 강조… 막판 빅딜 가능성

정기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4자 회담’이 전날에 이어 3일에도 열렸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이틀째 회담에 나섰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완전 결렬로 규정짓지 않고 ‘추후 협의’를 강조, 협상에 상당 정도 진척을 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회담 후 공동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양당 대변인은 특히 국정원 개혁특

위와 관련, “위원장 인선문제와 특위에 입법권 부여 문제, 국정원 개혁방안 및 수준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어제보다) 많이 진전됐다.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추가 협의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민주당은 특검 문제를 연내에 다시 논의하거나 이를 논의할 별도의 협의기구 설치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양특’(국정원 개혁특위와 특검)을 동시에 주장했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와 실익을 고려해 특검을 주장할 근거를 살려두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는 모양새고, 새누리당은 이번에 특검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 민주당은 특위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에 맞춰 이날 오후부터 실무선에서 물밑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 및 특검 도입과 관련한 국적인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새누리당)과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민주당) 채널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본

부장은 이날 4자회담에 앞서 전날 밤에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두 차례에 걸친 4자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못함에 따라 당장 시급한 현안인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여야 모두 정국 파행에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한발씩 양보한다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착수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잠정 보류한 여결위에서의 새해 예산안 단독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소속 위원들에게 대기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얼마 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오지로 나를 찾아와서, 작가가 되고 싶으니 소설 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했다.

생오지에는 가끔 소설가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작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 소설공부를 해두 늦지 않다고 잘 다독여서 돌려보내곤 한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학생은 막무가내로 작가가 되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매달렸다. 최인호나 황석영 씨도 고등학생 때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훌륭한 소설가가 되지 않았느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소설공부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다.

대학에 가는 것은 작가가 되고 난 후에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하키야 대학을 가지 않고도 명작을 쓴 소설가가 많다. ‘본노의 포도’로 유명한 존 스타인벡도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허만 멜빌은 “나의 아버지

한 여학생은 자신의 꿈은 패션디자이너인데 부모는 한사코 취업이 잘 되는 간호대를 지원하라고 강요한다면서 우물해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이 무시되고 부모의 강요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단다.

나는 이날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학상담 교사 말로는, 학생들 중에는 대학진학보다 일찌감치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들 극성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탓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가깝다.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이며 핀란드를 다음으로 세계 2위다.

노동시장에서 대졸 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20%에 불과하다.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학률을 50%로 다운시켜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대학입시로 꿈을 잃은 아이들

는 포경선이었다”고 할 정도로 고래잡이 배를 탄 경험으로 저 유명한 ‘백경’을 쓰지 않았던가.

작가가 되겠다고 나를 찾아온 이 학생은 이미 한국문학전집과 세계문학전집을 다 읽었다면서, 고등학교만 나온 작가를 이름을 줄줄이 댔다.

그래도 학교에 다니면 친구도 사귀고 사회성도 기르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 학교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친구요? 학교는 지금 등급 때문에 비정한 경쟁자들의 집합체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데 무슨 사회성입니까. 학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학생은 따지듯 내게 반문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찾아오라며 돌려보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지난주 어머니 독서회 인문학 강의 차 시내 D고등학교에 갔었다.

그날이 마침 수능시험성적을 받은 다음 날이라 학생들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신문에는 어김없이 연례행사처럼 성적률 비판한 학생의 자살 보도가 있었다.

이날 학교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자식을 어느 대학을 보내느냐보다 어느 학과가 취업이 잘 되는지 관심이 컸다. 벌써부터 청년실업을 걱정했다.

물론 한국의 교육열은 ‘오바마’도 칭찬할 정도로 높아,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하여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의 대학 진학률은 30% 이하다.

대학진학의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한다. 취업 또한 과정일 뿐 꿈이 없이는 안 된다. 한번뿐인 인생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삭막한가.

사람은 꿈을 꿀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므로 꿈꾸고 또 꿈꾸어야한다. 꿈꾸는 사람만이 인생의 반전을 맞볼 수 있다. 나는 대학입시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야” 고 묻고 싶다. 그리고 10년 후나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꿈을 꿀 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꿈꾸는 방법은 물론 기회마저 박탈당한 아이들을 보기가 괴롭다. 꿈을 잃은 아이들은 영혼이 빠져 나가버린 것처럼 매달라 보인다.

사람은 타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력에 의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다.

꿈이 인간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신들의 꿈을 함부로 짓밟고 돈 잘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한다. 인위적으로 가지를 비틀고 철사로 묶어 만드는 본래보다 자연 그대로 자라는 느티나무와 큰 소나무가 얼마나 의의적이고 더 아름다운가. 꿈꾸는 사람만이 꿈꾸는 대로 되어 진다는 것을 어른들은 왜 모를까.

〈소설가〉



‘4인4색’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北 2인자 장성택 실각설

국정원 “측근 2명 지난달 공개처형”
김정은 체제 핵심권력 대변화 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김정은 체제의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 온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정은 후계인 역할을 하면서 핵심권력을 쥐고 온 것으로 평가되는 장성택의 실각은 북한 핵심권력 구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노동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이 확인됐으며,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11월 하순 북한이 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공개처형한 이후 장성택 소관 조직과 연계 인물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 시부터 부침을 거듭해 오다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이후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됐으며 김정은의 세습 이후에는 핵심 후계인이자 사실상 2인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 보위부에서 장성

택 심복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가는 등 일부에서 견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장성택은 올해 들어 공개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측근들을 비리 등 반당 혐의로 공개처형한 사실을 전파하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차단에 부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장성택의 실각이 사실일 경우 김정은 체제 내 핵심권력간의 투쟁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 내부 동향을 면밀히 주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수시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산업단지환경 특별위원회 김상배

〈사진〉의원은 3일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전남도에서는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배출구 기준치가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부지경계선 20배 이하에서 15배 이하로 바뀌는 등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매,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군정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층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담양군 청평면 청평리 대지 539㎡(163)8500만원
- 함평군 영암 잘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71430평 평당 3천원 2억2천
- 광산구 신항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원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통영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원 수익 매도 9억46천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177평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청평면 고속도로 불계이트 입구 차량 진입 원활 2425㎡(734)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 북구 풍향동 재개발 확장지역 3층 주거지 1184㎡(358)공시가 4억 은행등 4억 매도 천만원
- 쌍춘동 원룸 건물 대지 169㎡(51)건평 278㎡(84)원룸 1개 쓰리룸 4개 보증금 1억원 월 110 매도 2억7천
- 대인동 4층 식당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6억5천 매도 8억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가능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쌍춘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H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춘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7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1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자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H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